

숭대극회 제22회 정기공연 (대학연극축전 참가작)

Brian Clark 작
신정옥 역
엄세범 기획
박양권 연출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일시 : 1980. 11. 5 .(수) 16 : 00, 18 : 00

11. 6 .(목) 16 : 00, 18 : 00

장소 : 숭 전 대 학 교 대 학 극 장

숭전대학교 학도호국단 문예부

격 려 사



총 장 고 범 서

80年代를 맞아 피어오르는 藝術創造의 精氣를 품고 崇大劇會는 또 하나의 가을 정기공연 작품을 마련하였읍니다. 이번 공연작품은 현대희곡상을 받은 작품으로서 날로 발전하는 숭대극회의 오묘한 藝術感情을 表現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와지는 숭전인으로서 眞實을 추구하는 예술적 창조노력을 높이 評價하며 이제까지 쌓아온 榮光과傳統의 공지를 유감없이 발휘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동료들의 적극적 참여속에 하나님의 恩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모 시 는 글

극회장 전 경 호



올해는 비바람이 더욱 모진 해 였다.

그리고, 오랜 동안의 공백.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부족투성이인 우리를 본다.

그러나 우리는 젊음으로 우리의 극장문을 열었다.

저 깊은 침묵의 영역.

그 침묵의 영역에 우리의 젊음과 땀과 귀중한 시간을 쏟아 넣었다.

이루어진 결실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만 그 두려움을 회피하기엔 우리는 너무 젊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되 나약해 지지 아니하며, 지혜를 사랑하되 오만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머리속에 새길려고 노력하며 두려움을 억누르고 이 작품을 여러분께 바칩니다.

숭대극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그리고, 우리를……

企 劃 의 辭

기획 업 세 법



10月.

하늘이 열린다.

열린 틈바구니로 하얀 言語가 조각 조각
부서져 내리고,

피와 땀과 눈물이 엉겨 붙어
신선한 생명을 임태 한다.
아니,

도대체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

여미었던 우리의 정열에 불을 당긴다.

연 출 의 변

연출 박 양 권



\int_0^1 d人 = + 0

\int_0^2 d人 = + d

\int_0^3 d人 = + 2 d

\int_0^∞ d人 = + life.

演劇이 自我에 對한

주위에 對한 指標가 된다면

演劇禮讚論이 될는지?

어려움 속에도 서로 서로 아껴주어온

선배, 후배, 동료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STAFF



김정희



전석근



서동철



이종규



한홍석



양영호



권오탁



이현우



서해준

기획: 엄세범(경제2)
연출: 박양권(철학2)
조연출: 김정희(사학2)
조명: 전석근(전기2)
무대감독: 서동철(섬유3)
무대장치: 이종규(전기2)
진행: 한홍석(섬유2)
음향: 양영호(섬유2)
소품: 권오탁(공대1)
분장: 이현우(공대1)
정재: 서해준(공대1)

CAST



전경호



최영미



김돈근



김차선



조인선



강영균

캔 : 전경호(전산3)
스코트: 최영미(사학2)
에머슨: 김돈근(공대1)
간호부장: 김차선(문리1)
보일부인: 조인선(법경1)
힐: 강영균(공대1)
판사: 음태웅(공대1)
존박사: 이영환(공대1)



음태웅



이영환

두리번

- 1층: Snack Corner (분식일절)
2층: 경양식 및 맥주 · 청량음료

충전대학교 로터리

☎ 829-3840

●●●●● 公演作品 研究 ●●●●●

이번 공연작품의 作家인 Brian Clark는 存在主義的思想의 배경下에서 現代人間의 病的인 無氣力함, 人間의 手段化, 道具化 되어지는 產業主義文明과 人間의 本質의 삶을 驅倒하는 어떠한 형태로서의 상황을 고발하려 한 것이다.

Brian Clark의 커다란 의침은 강한 어조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표현법에 있어서 「꿀맛」(셀라딜레이作, 영국)의 경우와 대조를 이룬다. 「꿀맛」의 경우는 현대인간의 價値秩序傷失을 赤裸裸하게 제시하면서 이러한 가치질서 상실을 認識조사 하지 못하는 植物化現像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법은 현실을再现하는 듯한 사건의 전개에서 관객은 직관의 방식으로 경이로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반면 Clark의 경우에는 현대의 병적인 상황을 타개할 意志를 높이 외쳐 관객의 가슴에 직접부딪치는 합성이길 원하고 있으며 무기력하고, 풍물하여지는 의식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내기 위한 “意志의 開陳”이라 할 것이다. Clark의 강한 tone은 관객을 위기와 갈등으로 몰입시킴으로서 관객, 배우, 무대가 일치가 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며, 새로운 우주가 탄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극 예술은 성립되는 것이며 대화의 광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無言의 대화(연기자-관객)는 우리 大學人으로써 무엇보다도 값진, 살아있는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듯 연극의 탄생은 연기자의 고된 훈련과, 努力, 철저한 자기반성과 實質되고 純粹한 情熱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感動과 共明의 광장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우리가 看過해서는 안될 사실이 있다.
演劇을 보는 우리를 觀點의 방향인 것이다.

우리네 연극이 形式, 内容, 나아가서 思想까지도 외국의 연극에 의존해 왔다는 평가는 크게 잘못된 論論은 아니지만 연극이 예술성을 간직하며 관객과의 만남을 시도한다면 그런 연극의 맛은 적잖느끼는 채 힘의 맛은 아닐지라도 음미함으로의 맛인 감칠맛이 아닐까 한다. 어쩌면 이러한 감칠맛이 깊은 맛이 될지도 모른다. 여기서 음미함의 意味는 철저한 “認識의 努力”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내가 태어난 땅 내가 흙이 될 땅덩이, 서러움을 간직한 땅, 바로 이 땅이 또한 내가 사는 땅이다. 이러한 歷史의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하며, 우리의 歷史認識의 바탕에서 보아야 하며, 미래를 향한 발전의 입장에서 作品을直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될때에만 연극은 우리의 것이 될것이며, 진정한 의미로써 人間探究의 작업이 될것이며 민족에 대한 성스러운 작업이 될것이며, 영원한 가치의 보존이 될 것이다.

이 나라에 사는 人格體로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 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急先務일 것이다 연극이 살

아 있는 生命체로서의 의미도 비로소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공연작품은 全 2 幕으로 나뉘는데 주인공(캔·헤리슨)은 의식만이 온전한 전신 불구자로 나타난다.

植物化된 그의 육체를 향한 병원주치의(에머슨)의 의지는 그를 위해 의식을 흐리게 하여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마비시키려하는데 있는 것이다.

같은 병원 의사인 스코트란 인물도 등장하는데 이는 평범한 인간 즉 理想과 現實 사이에서 不義와 正義 사이에서 척척히 조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人物인 것이다.

극중인물들과의 만남에서 현실을 외면한 삶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주인공은 더욱 소리를 높여 외치게 되는 것이다. 척척히 짤리고, 척척히 늘리워져 살아야 되는, 아니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의 현실이기에 헤리슨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作品研究란 하나의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틀을 짜는 방법을 제시하는 편이 더욱 효과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作品研究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술조차도 하나의 다른 형태의 틀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여기 한 가지 확실한 발언이 용납될 수 있다면 그것은 살아 있음이란 認識作用이라는 것과 우리의 용기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원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때 살아 있음(Da sein)의 意味는 人間精神의 勝利로 表現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캔·헤리슨의 죽음의 의미이다.

人間의 삶을 결정하는 尺度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어떻게란 날말이 아닐까? 어떻게란 척도는 人間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판단 기준을, 精神的인 내면의 판단 기준으로 이끌어 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캔·헤리슨의 죽음을 음미해 볼때 그는 필연의 죽음 즉 부여받은 죽음이 아닌 선택의 죽음이었다.

캔·헤리슨에 있어서 선택의 죽음이란 철저한 自我省察을 거친 人間精神의 완성을 향한 죽음이었다.

즉 연극공연이 막이 내려짐으로써 완성을 이루듯 그의 죽음도 삶의 終末이 아닌 새로운 삶의 창조를 뜻하며 人間을 實存케 하는 의미로써 작용하는 것이다. 결국 그는 自由하게 된 것이다.

우리를 각자 각자의 머리에 그의 영혼은 잠재 해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의 죽음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되리라.

무대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캔·헤리슨에게 끝없는 갈채와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내 자신을 험책하며,

~ 哲學 二 朴良權 ~

崇 實 社

建 築 業 (복사·덤프·하톤덤프)

각종 목재 실험도구 제작 (책상·의자·비풀일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 1동 619-3

代 表 丁 祐 鎮

TEL. 사무실: 827-5544

자 택: 829-2849

공연연보

回	年	譜	作	品	演	出	回	年	譜	作	品	演	出
1921년 6 : 13		연극회 소인극 "천세영웅 나를위옹의 일로" "내 비극 노여의 날"			12	1974년 5 : 25, 28, 30		"정의의 사랑들" (전 5 편) A. 카류 作				정 종 화	
1922년 13.7 : 7		전현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나를위옹" "기계인간" 열 액정연희주관			1	1975년 3 : 10, 11, 12		"아름다워" W. Arving 作 (시인 정 천정)				김 흥 수	
1923년 7 : 28, 29		"소인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13	1975년 6 : 9, 10, 12, 13		"아울러의 신체" "드래프트스카라"는 이동의 거북이				안 흥 순	
1	1965년 11 : 11	"魔宮으로 올라가다" 황석영 作 李 盤기 作	전 진 호	14	1975년 10 : 29, 30, 31			"비단연걸 밤향나눔" Max. Frisch				안 흥 순	
2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 대 주	2	1976년 3 : 17, 18			"보석과 여인"				김 드 남	
3	1969년 10 : 10	외 차 를 이오네스코 作	이 대 주	15	1976년 6 : 1, 2, 3			"인 터 푸"				김 드 남	
4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 풍 인	16	1976년 10 : 25, 26, 27, 28			"인"				김 영 터	
5	1970년 5 : 15	"聖者 셈풀" by John Millington Synge	한 영 채	3	1977년 3 : 16, 17, 18			"출"				안 흥 순	
6	1970년 10 : 28, 29	승려의終末" 사립엔 · 베케트 作	김 양 기	17	1977년 6 : 15, 16, 17, 18			"EQUUS"				김 영 터	
7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년옥 삽화" 윤조영 作 "남해해도에 흐르는" "황금단지" (로마극) "고도를 기다리며"	정 종 화 주 정 시 한 영 채 유 균 배	18	1977년 10 : 10, 11, 12, 13			"EQUUS" (대한민국제 참가) 외터 · 캐터 作 냉장철 기획				김 영 터	
8	1971년 11 : 4, 5	"서적병의 그림자" 선 · 오케이시 作	차 현 채	1978년 6 : 5, 6				"CONUTER POINT" By Olov Hartman 냉장철 기획				김 영 터	
9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칸터 作	한 영 채	4	1979년 3 : 29, 30			"EQUUS" (대한민국제 참가) 외터 · 캐터 作 민승기 기획				정 재 호	
10	1973년 5 : 21, 22, 23	"인사기에서의 천운" F. 워렌마트 作	고 풍 인	1979년 6 : 18, 19				"한강 2979" 김 영 터 作 정재호 기획				이 빙 구	
11	1973년 10 : 25, 26, 27	"나" H. 칸터 作	차 현 채	21	1979년 9 : 29, 10 : 2			"조선" 오 대식 作 이 성인 기획				한 청 순	